

교회 연합과 일치 위해 남가주 미스바 대성회

교계 각 단체들 협력... 강사는 박보영 목사

남가주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대부흥을 위한 연합집회가 열린다. 남가주 미스바 대성회로 명명된 이 집회는 뉴욕교계의 연례 연합집회인 할렐루야대회를 모델로 해서 남가주 교회의 연합, 불신자 전도, 교회 대부흥을 도모한다. 이 성회를 위해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주최하며 남가주 교계의 각 단체들이 협력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미스바 대성회에 초청되는 강사는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심장 마비를 겪으며 신학대에 입학, 목사가 됐다.

이후 자신의 재산 30여억 원을 모두 기부하고 개척교회를 세워 인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있다.

성회는 오는 3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에서 네 번에 걸쳐 열린다. 세부 일정은 ▷1일 오후 7시 30분 ▷2일 오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3일 오후 4시다.

24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지역사회와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남가주 일원 교



미스바 대성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회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만들어가는 성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하에 집회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위로하시는 성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는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가주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길 바란다. 박보영 목사님은 목회자를 깨뜨리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기대된다"고 했다.

진유철 목사는 "이번 성회는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연합하는 모임이 될 것이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또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성회를 위해 온 교계가 정기적으로 기도모임과 금식기도를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제33대 신임회장·31대 이사장 이취임예배



박우진 신임회장 윤우경 신임이사장

오렌지카운티지역 450여 교회 평신도가 하나되어 협력하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OC전도회연합회)가 26일 오후 5시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신임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우진 집사가 손찬우 집사의 뒤를 이어 제33대 회장에, 윤우경 집사가 임재선 장로의 후임으로 제31대 이사장에 각각 취임했다. OC전도회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우진 집사(남가주사랑의교회)는 "중책을 맡게 되니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서고 영광보다는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교계의 전도와 선교를 책임진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기 동안 ▷교회연합회와 미자립교회 지원 ▷전도를 위한 문화사역 및 선교 구제사역 ▷청소년 선도 및 치료사역 등 3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취임한 이사장 윤우경 집사는 "무엇보다 33년 전 창립된 OC전도회연합회의 존립목적을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이사회지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취임감사예배는 서소희 전도사와 최남은 안수집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표기도 김도영 장로(OC전도회연합회 이사), 성경봉독 더글라스 김 집사(HYM 대표), 설교 민경엽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나침반교회 담임)에 이어 이호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의 헌금기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민경엽 목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행2:42-4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귀한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 임재선 장로가 이임사를 통해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주시는(이사들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여기에서 있다"면서 "기독교 단체는 모름지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간의

허물을 용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사회단체와는 절대로 같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은 목사(OC목사회 회장), 오득재 OC한인회 회장이 축사했다. 또한 이날 최석호 열반인 시장을 대신해 해럴드 서 보좌관이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으며, 정영수 목사(OC원로성직자회 회장)의 축도로 이날 예배를 모두 마쳤다.

직전 회장인 손찬우 집사(은혜한인교회)는 일신상의 이유로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한편, OC전도회연합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7시) 정기 조찬기도회로 모이며, 멕시코 단기선교,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연합 전도부흥집회, 교회연합 체육대회, 광복절기념 감사예배, 교회연합 성가제, 선교구제기금 모금 행사 등의 연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하나 기자

社告

본보가 창간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을 표방하는 기독교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창간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보는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보다 나은 언론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지난 25일 미주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교계 여러 지도자 및 귀빈들을 모시고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격려를 주시는 정성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본보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랍니다.

▶▶ 관계기사 4면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 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린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미국 무제한 통화 \$9.99/월

비싼 집전화는 가라! 아이토크비비가 나가신대!

무계약+ 4개월 무료*

행사기간: 2013년 2월 15일 까지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캘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이 땅의 영적 회복 위해...” 첫 남가주연합기도회 개최

애너하임의 소모임에서 대규모 연합모임으로 확대
 LA사랑의교회에서 6시간 동안... 60여 기도 용사들
 세계 선교와 가정의 회복, 교회 부흥 위해 부르짖다
 박형준 목사 설교 통해 “기도 통해 교회가 변한다”

남가주 지역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26일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에서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동안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60여명의 적지만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교회의 부흥, 가정의 회복,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 기도회는 애너하임에서 목회하고 있는 남가주생명교회 박형준 목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열고 있는 기도회를 남가주 지역으로 확대해 개최한 첫 연합기도회다.

박형준 목사는 “각 교회 부교역자와 청년부 리더들이 연합해 만든 순

한 기도모임”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도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가 6장 6-8절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한 박형준 목사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흥이 일어난 교회와 나라는 여지껏 없었다. 평양대부흥성회도 기도운동이 시발점이 돼 일어났다”며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예전에 명절이 되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꽂혔었다.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었고, 되려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에서 열린 첫 남가주연합기도회에 참석한 60여명의 각 교회 부교역자를 비롯한 청년부 리더들이 교회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며 “다른 기도보다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고 당부했다.

남가주연합기도회에는 고문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를 중심으로 남가주생명교회 박형준 목사, 충현선교교회 이도한 목사, 박종순 목사, 권능있는제자교회 김지언 전도사, 갈보리믿음교회 김대성 목사, 선한정지교회 김도혁 목사, 엘림선교교회

박승도 목사, 엘피스교회 장성영 목사, 월드쉐어 김희기 선교사, LA사랑의교회 이윤경 전도사, 나눔선교회 정근택 전도사, 리버사이드주님의기쁨교회 강은 전도사, 뉴호프채플 최명진 전도사 등이 협력교회로 참여했다. 토마스 맹 기자

스티어 목사 “교회 청소년 사역 물몬에게 배워라”



그렉 스티어 목사

미국의 청소년 사역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물몬교의 청소년 사역과 기독교의 청소년 사역을 비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Dare2Share Ministries의 설립자로서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는 사역을 펼쳐온

그렉 스티어 목사는 한 칼럼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말쑥하게 차려 입은 청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말하며 청소년 때 어떤 훈련을 받기에 물몬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청년 전도자가 되는지 하나 하나 분석했다. 그는 먼저 “물몬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다. 물몬은 청소년들이 12살이 되면 사역자로 인수하고 내보낸다. 우리 그렇지 않다. 물몬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2년간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그만 두었다는 수십만 명의 청소년을 만날 수 있지만 물몬을 믿다가 그만 두었다는 청소년은 거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5년 4백50만명이던 물몬이 현재 1천2백만명으로 성장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고등학교 동안 물몬의 신학을 매일 배운 그들은 고

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물몬경을 들고 나가서 대학에서 전도한다”고 말했다.

스티어 목사는 “물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들은 물몬의 신앙과 교리로 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그는 “우리 청소년들은 1-2년에 한번 일주일간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나마 복음 전파보다는 건물을 지어주고 오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몬은 분명 기독교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종교이지만 복음주의 기독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자신들의 교리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물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철학만큼은 배워야 한다”면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강하게 훈련하며 현장으로 파송해야 한다.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삶을 이끄는 선교사로 키워야 한다”고 도전했다. 김준형 기자

PGM, 제3회 강사·스텝 수련회 개최

전문사역자 양성 과정

19일 LCCC서...50명 참석

선교훈련 노하우 제안 논의

지난 19일 현재 PGM 강사 및 선교학교 운영자로 섬기고 있거나 향후 강사 또는 운영자로 섬길 사역자들이 LCCC(Livingstone Christian Conference Center)에 모인 가운데 제3회 PGM 강사·스텝 수련회가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국제본부 사역자, 권역장, 선교사들을 비롯해 콘트라코스타한인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존스클리한인교회, 뉴욕에일장교회, 에틀란타한인연합교회, 필라 안디옥교회에서 50여명의 PGM 동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PGM은 이번 수련회에서 지난해 PGM 선교학교의 운영현황을 나누고, 2013년 선교훈련 진행을 위한 커리큘럼 조정 및 효과적인 선교훈련을 위한 제안, 사례발표와 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선교훈련을 위한 노하우와 제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

을 가졌다.

또한 전체강의에 이어 소그룹별 집중 교육과 토론 순서를 가짐으로, PGM이 추구하는 선교훈련의 비전과 방향을 이해하고 PGM 선교학교의 개선방향과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측은 “앞으로 PGM 선교학교를 섬기는 강사 및 운영자들이 PGM의 비전과 가치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사역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PGM은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창의적 접근지역과 미전도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 평신도 전문인과 목회 전문인을 훈련시키는 선교학교다.

현재 선교에 헌신된 인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은사와 소명을 개발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현지에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통으로 녹아나오지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이번에 제3기 의료선교사 23분의 수료를 무사히 마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님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다양한 의학분야의 필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를 육성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금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의료선교사제4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안내

신청자격: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계신 남녀분

모집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 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4. 의료봉사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분

모집인원: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 함)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교육기간: 총 20주 (매주 2회 4시간 교육)

접수마감: 2013년 2월 9일 (토요일)

개강일자: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교육장소: LA지역- 2836 8th St. #106, LA (금란노인상조회건물)
Orange County- 8208 - 2 Garden Grove (기독교강의실)

접수처: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강사: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교육내용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치료술)

1. 근육 치료학: 각종통증 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자연식요법 (난치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의 수기치료 교육은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전문치료를 종합 교육하므로 완벽한 치료를 육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의료선교사 육성 교육기관입니다. 손을 사용한 치료 방법은 주님이 기적을 보이신능력의 은사와 동일 합니다.

수료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3. 부부가 수강신청시 한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를 면제합니다.

선교 법인 세계 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836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테너 김준만과 소프라노 4인... 5색 향연 '축복의 소나기' 테너 김준만과 함께 하는 자선콘서트 '축복의 소나기'가 막을 올렸다. 27일 오후 4시부터 무려 3시간에 걸쳐 LA 한인타운 한 가운데 자리잡은 갈보리민음교회(강진웅 목사 담임)에서 진행된 콘서트는 4백여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이날 테너 김준만을 비롯해 소프라노 황혜경·최정원·사나 블레이크 힐·사론 김 등 5인의 음악가들이 출연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페라 아리아 Addio Fiori Toasil> <카르멘의 Habanera> <라보엘의 Quando me'n vo>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All I Ask of You'> 등 주옥같은 곡들로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은퇴한 미국인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해피 재즈밴드'가 출연해 다채로우면서도 멋진 공연을 연출했다. 객석에서는 연신 '브라보'가 터져 나왔고,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편, 이날 모인 수익금은 태국 및 미얀마 불우아동돕기 기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플러한인동문회 가족단위 신년모임

27일 또감사교회서 개최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한인 동문 되기로 다짐

이 귀한 선교의 세계를 이룰 것인가? 이는 약함, 가난함, 멸시를 통해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세월을 아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다. 많은 노력을 하는 한국교회가 자랑스럽다. 그 앞장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플러신학대학원 한인 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에서 주최하고 플러한인 M.Div. 동문회(회장 박세현 목사)에서 주관하는 2013 플러한인 동문회 가족신년모임이 27일 오후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사회 박세현 목사, 대표기도 이영우 목사(비전교회), 말씀 마원석 박사, 광고 이선영 목사(얼바인열린교회), 축도 방수민 목사(메다니한인교회) 순으로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마원석 박사는 "한국 이민자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한국교회가 세워진다.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

친교시간에는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모여 사역을 나누며 교제를 나눴다.

미서부침례신대원 목회학박사과정 수업 진행

14-25일 LA 제일침례교회서

nary of West, ABSW)는 1871년 설립돼 올해로 140년 전통을 가진 명문신학교다.

미서부침례신학대학원 LA 캠퍼스(분교장 배효식 박사)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제일침례교회에서 목회학박사과정 수업을 진행했다. 미서부 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

1962년에 세워진 Graduate Theological Union(GTU)의 초대 회원으로서 미국 서부에 세워진 침례교회의 전통 보수적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100일 기도 성료 "변화된 새 삶 향해 앞으로"



22일 플러튼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계속된 100일 특별 작정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됐다.

22일 저녁 은혜한인교회에서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시작된, 100일간 교회와 개인, 미국의 각성을 위해 기도 해온 '100일 특별 작정기도회'가 성료했다.

이상을 가득 메운 가운데, 100일간 특별기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감사기도를 드렸다. 성도들은 이 기간 중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기도해 왔다.

이 기도회는 동시에 지난 2일부터 21일간 이어진 '신년 21 다니엘 특별 기도성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이날 성도들은 2500여 좌석의 2/3

한 성도는 간증에서 "지난 100일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며 "손주까지 합해 가족이 20여명이 된다. 앞으

로 온 가족이 1400개 교회개척과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성도는 "친정 식구가 다 불교도라서 식구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건 한계가 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놀랍게도 최근에 한국에 있는 친인니와 통화를 하는데 불교에 비해 교제의

성도들 좌석 3분2 이상 가득 매워 매 설교에서 성경인물 집중조명

시간을 많이 갖는 교회가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 통화를 한 날 기도회에 참여해 폭풍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언니가 미국에 방문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으로 기대된다"고 간증했다.

동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는 특별 작정기도회 마지막 날 설교에서 사도행전 11장19-26절을 본문으로 성경인물 '바나바'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영적인 거장이 되려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바나바는 첫째로 위로의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피했던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줬다. 중간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나바와 같이 새로 온 자들을 품어주고 격려할 때 교회가 따뜻해진다"고 덧붙였다.

동교회는 올해 표어를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로 정하고, 매 설교를 통해 성경 인물들을 분석해 살펴보고 있다.

그는 "바나바는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적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것이 축복이다. 또한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팀 사역을 한 사람이었다. 나를 세워주면 내가 세워진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간증자들이 나오고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바나바처럼 지속적으로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성도들은 약 3개월에 걸친 기도 대장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길 다짐했다.

한 목사는 "바나바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교

토마스 멩 기자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컷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맨드레이크, Wilshire

기독교일보 창간 9주년 맞아 기독교언론의 사명 다짐

예언자적 소명 붙잡고 복된 소식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나팔수 되라

진유철 목사 등 70여 한인교계 지도자들 격려

지난 9년 되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교회 안팎의 어둠,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추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을 표방하는 기독교일보가 창간 9주년을 맞아 24일 오전 미주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70여 명의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9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인규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념 예배는 강신권 목사(비전153 글로벌 미션 총재,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진유철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설교, 백지영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 이운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와 송규식 목사(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가 축사를 전했으며, 격려사는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회 직전회장, 벨엘장로교회 담임), 장재호 목사(본지 편집고문, 서울성은교회 담임), 축도는 이종민 목사(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가 맡아 본지를 격려했다.

대표기도를 맡은 강신권 목사는 "기독교일보가 9년의 세월을 오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힘쓰고,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진유철 목사는 이날 '고난을 이겨야 비전을 이룹니다'(시119:7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순금이 나온다. 그릇을 만들 때에도 섭씨 1600도를 지나야 쉽게 깨지지 않는 좋은 그릇이 된다"면서 "기독교일보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운영 목사는 축사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규식 목사는 "미주 교계에 여러 기독교언론이 있지만, 기독교일보는 타 신문에 비해 보다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고 느꼈다"면서 "목회자를 넘어 일반

인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다음 세대들이 이 신문을 통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영의 목사는 "기독교언론으로서 은혜롭고 복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하고, 항상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진실만을 밝히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재호 목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일의 소식봉"으로서 교회 안팎의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고, 믿는 이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는 신문이 되라"고 전했다.

본지 이인규 사장은 "9주년을 맞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해 주신 많은 교계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일보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인규 사장은 "10주년을 향해 거룩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제 교계 소식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의 뉴스를 커버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종합 미디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머지않아 자체 사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한국이 낳은 유럽 정상의 현역 오페라 가수, 테너 김준만 씨가 축하를 불러 본지 창간 9주년을 축하했고, 현대자동차(푸엔테힐스) 등 9개 지역 한인 업체들의 후원으로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전달됐다.

본지는 2004년 1월 23일 LA와 뉴욕에서 창간했으며 이어 2006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등에 지사가 설립되면서 미주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현재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 온·오프라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모바일 버전(m.chdaily.com)도 개발해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다.

정하나 기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을 표방하는 기독교일보가 지난 25일 창간 9주년을 맞아 미주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첫번째 사진) 예배를 마치고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두번째 사진) 케이크 커팅을 하는 관계자들. (사진 왼쪽부터)송규식 목사, 변영의 목사, 이운영 목사, 진유철 목사, 이인규 사장, 강신권 목사, 백지영 목사, 이종민 목사.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살라한대) 교동사교·각종보험·여행자보험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ATS 인준 셰퍼드 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셰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셰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 미래**
 - 미군 군종 장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2 높은수준**
 - ATS 인준 (Candidacy)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3 편안한 교육**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영어강의 / 통역강의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생원 운동의 주체로서 20여년의 성경적 체제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회 성장, 재지 훈련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재지인-1'이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셰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회성장, 재지도 분야에서 재직중임과 동시에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 전령사 내적 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같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사탄의 영을 대항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복'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영명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셰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 현재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미터, 오토너, 잭 에버렛, 빌 브라이드 박사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도를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 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탄의 기쁨부름', '번역 등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 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히브리서 3: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대와 목적 그 자체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쓴 것은 교회 등록하고 출입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 영광의 후사로 천국을 물려주시기 위한 상속 받을 대상으로 택하시고 불러들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의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주실 것이며 그가 회개의 성령에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지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간의 범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지옥질에 시달렸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파송된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오로지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겸손하여 끝까지 따르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책임지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관에 의한 구원의 교린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한 회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 그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간 분위기에 어울리고 휩쓸려서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에 대한 간절한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들락거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잘못 산 지난날들의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받자고 회개를 서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와 같은 성령으로 회개케 하심의 과정이 없었고 진심으로 회개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 갈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목자를 통한 성령의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불안도 두려움도 없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뿌리는 아는 것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세상 마귀가 어떤 형태로 위협하고 환난 풍파로 힘들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동요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얇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형편과 입장에 따라 믿는 척 했었는데, 교회에서나 선교를 통하여 교회로부터 자기에게 부담이 되면 금방 믿음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회개하던 그 시간부터 확실한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졌고 또 깨달아진 만큼 깊이 믿어지기 때문에 시작한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생활의 4가지 과정

이 신앙생활은 네 가지 과정에 변함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게 되는 신지식(God Knowledge)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약속하고 증거하는 내세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소망적인 믿음을 생활속에서 입체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진리의 기대감을 갖고 그 진리가 증거하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임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은 헤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을 받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이나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거짓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20:28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히 깨달은 보배로운 진리, 성령의 계시와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진리의 약속대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에 젖어 사는 모습을 모

든 주변사람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증 - 기쁨과 내세의 소망자랑

2절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과과의 존재와 자기에 대한 비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수모와 고통 가운데 횡포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떤 고난도, 죽임 당하심도 전혀 주저하시거나 망설임 없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한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된 광야교회를 말합니다. 그 광야교회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자객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시기까지의 여정속에 있었던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지는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교회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세웠고 그 광야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애원하고 책망하고, 처벌해가면서 이끌어 왔으나 불행하게도 40년 세월을 모세의 목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천국가는 노정에 대하여 구약에 있었던 모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3:7-8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합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하십니다.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갖추라고 목자 모세를 세워서 일러 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던 그들은 광야에

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고 한꺼번에 생매장을 시킨 일도 있었습니다.(민16:25-34)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속도 없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철저하시고 안락하신만큼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영원한 영생복락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해오더라도 더 낮고 영구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위험도 횡포도 뿌리치며 믿음과 기도로 타개하며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은 내세의 소망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자랑하고 증거하라”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신령한 소망의 기쁨과 만족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소망의 확신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랑했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까지 입으로 증거한 만큼 생활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세상 조건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허락받은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으로 절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이 헛되지 않는 성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안도하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지켜 사느라 힘들었지만 끝까지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눈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되 깊이 깨달아 내세의 소망을 견고히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념)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산: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교

람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말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호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재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열매 사랑교회, 믿음의 은사를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백 변호사 그룹, 마동현 변호사 그룹, 가주 양로호텔, Lahenda, Inc. 세일라, 자용차,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재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단신 및 동정

나성영락교회 한국학교 복학기 등록

나성영락교회는 2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학교를 개강한다. 현재 2013년 복학기 등록을 받고 있다. 강의 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이며, 프로그램은 한국어 3시간, 특별활동 1시간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교회는 특수사역수 목사(폴 타임), 특수사역부 전도사(파트타임)를 청빙 중에 있다. ▶문의: 323-227-1400

장애인 토요일학교 개설

포모나 지역에서 '인랜드 장애인 토요일학교(교장 홍성원 목사)'가 개설됐다. 올해 들어 새롭게 시작된 토요일학교는 장애인들을 위한 ▶독립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한글 및 영어교육 ▶점자 ▶음악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학부모를 위해 전문 상담원 등이 상담도 해준다. 매일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포모나 인랜드교회(1101 N. Glen Ave)에서 열린다. ▶문의: (909) 622-2324

방주교회 주최 사랑의무료점심

내달 7일 정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필그림 루터교회에서 방주교회(김영규 목사 담임) 주최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행사가 열린다. 설 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쌀 한 포대씩이 특별선물로 증정될 예정이다. ▶문의: (213) 663-3301

레이저비전, 마이크 전달식 가져

교회음향 전문회사 전문 시공업체인 레이저비전월드(대표 양철승)가 지난 25일 본보 창간 9주년을 맞아 마련한 감사예배에서 작은교회 목회자를 위해 마이크를 전달했다.

레이저비전월드는 매년 작은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마이크는 총 6개로 남가주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에 각각 2개씩 전달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수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본보와 레이저비전은 미디어 사역자가 부재한 교회들을 위해 공동으로 무료음향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14일(목)에는 벤추리카운티 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323-730-5050)

나성서부교회 한글학교 학생 등록 접수

나성서부교회(담임목사 이정현)가 한글학교를 2월 첫 주부터 매주 시작하며 현재 등록을 받고 있다. ▶주소: 1218 S. Fairfax Ave. LA ▶문의: (323) 939-7323

뉴비전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부흥회

밀피타스에 위치한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 1201 Montague Expway, Milpitas)는 오는 1~3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부흥회를 개최한다.

'거룩한 사람들'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 강사는 LA ANC 은누리교회 담임인 유진소 목사다. 일정은 >1일(금) 저녁7시 30분 >2일(토) 새벽 6시 30분 저녁7시30분 >주일설교 1-4부. ▶문의:(408) 719-0000

주님의 기쁨교회 입당예배

리버사이드 지역 주님의 기쁨교회(담임목사 이상호)가 지난 27일 오후 3시 입당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기쁨교회는 순복음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리버사이드 지역 창고 건물(1540 W. Linden St)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입당했다. ▶문의:(951) 200-9191

북가주 KUMC 신년하례회 열려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목사회 신년하례회가 21일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목사 담임)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목사 및 사모, 여성교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만찬, 친교 순으로 진행됐다. 북가주 KUMC 목사회 회장 송계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차원대 원로 목사(전 상향한국인 연합감리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어 김흥기 전 감신대 총장의 식사기도 후 교제를 가졌다. 아울러 이날 특별히 몬트레이에서 목회를 한 박선용 원로 목사와 김옥환 원로 목사가 참석해 축도와 파송의 기도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새생명비전교회-뉴호프교회 전격 통합

강준민 목사 목회서신 통해 "사랑으로 담대히 연합하자" 언급

새생명비전교회와 뉴호프교회가 전격 통합한다.

새생명비전교회(담임목사 강준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두 교회 통합에 관한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돼 오다 이날 중순 전격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뉴호프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공석 중이다. 뉴호프교회에 남아있는 채무 403만 달러를 새생

명비전교회측이 분담하기로 결정되면서 구체적인 행정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LA고등학교와 이디오피아교회를 예배당으로 빌려 쓰던 새생명비전교회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뉴호프교회(2861 Los Feliz Blvd)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강준민 목사는 27일 목회서신

을 통해 "하나님이 새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뉴호프교회 성도님들과 연합을 하도록 축복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목사는 "여태껏 목회하면서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은 사랑으로 담대히 연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정폭력문제에 해답 주는 <만데빌라> 영화 시사회

한인가정상담소, 오는 7일 한국문화원서 개최

한인가정상담소가 가정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단편영화 <만데빌라(Mandevilla)> 시사회를 내달 7일 오후 6시 30분 한국문화원(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에서 갖는다.

이번 시사회에는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소장,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김, 영화감독 앤드류 오, 배우 아든 조, 아역배우 랜스 임이 참석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영화를 통해

공론화하기에 예민한 주제인 가정폭력에 대한 대화의 장에 한인 남성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진솔한 대화를 증진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상담소는 4회에 걸쳐 이 영화를 교회 및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상영했다.

이번 시사회 참석 정원은 90명이다. 시사회에 참여하려면 한인가정상담소의 웹사이트 www.kafsccla.org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번 영화 <만데빌라> 시사회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남녀 관계와 관련해 한인 남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아울러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나 멘토, 코치로서의 역할을 알리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자원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3기생 배출



26일 제3기 의료선교사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만 질병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의료선교사를 양성하는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이 26일 제3기 의료선교사 수료식을 갖고 23명의 의료선교사를 새롭게 배출했다.

이날 행사는 예배인도 김성권 장로, 대표기도 이재삼 목사, 성경봉독 이동

하 장로, 설교 엄기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엄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손을 가지고 여호와와 공의와 공평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이재삼 목사의 사회 하에 수료식이 거행, 총 23명이 수료했다.

이날 수료생을 대표해 입학섭 집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기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대표 박승부 장로는 "2년 전 5명으로 시작할 때 한 알의 밀알을 심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50명의 의료선교사를 배출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천여명의 의료선교사 양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재단은 현재 4기생 수기치료 선교사를 모집 중에 있다. 수강 과정은 20주에 걸쳐 LA와 OC 지역에서 각각 소수정예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개강일은 2월 13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근육교정학, 체형교정학, 척추교정학, 영양물리학 등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의료선교사를 양성한다. ▶문의: (213)381-7273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월 4일 2013년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기르자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깊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정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여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cusa.com / icc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턴)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M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를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www.sejongbiotech.us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GMP
 제품박스에 한국식약청의 인증마크와 효능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은 다릅니다!

세종바이오텍은 한국식약청(KFDA)이 공인하는 건강기능식품만을 공급합니다. 일반보조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공인받은 효능이 제품 박스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박사나 병레이블을 확인하시면 인증로고와 효능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가능하여 공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박스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 213)383-8899

621 South, Virgil AVE, Suite 430, Los Angeles, CA90005

포르테

세종 송보감

미국 캐나다 특·점·판·매

혈당조절, 세포노화방지
 서울대병원 임상(혈당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송보감이 4년간 사랑받는 이유

- 서울대병원 임상·혈당조절, 콜레스테롤조절 인정
- 한국식약청(KFDA)공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혈당조절, 노화방지 기능성 공인
- 광동제약,롯데제약 등 한국에서 판매중
- 원료:솔잎증류농축액 450MG, 비타민E 3MG (PINE NEEDLE DISTILLED CONCENTRATE)

세종송보감은 이런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 혈액순환, 혈당조절, 혈관청소를 원하시는분
- 당뇨, 내당능장애(예비당뇨인), 혈압, 고지혈증을 우려하는 분
- 중성지방,콜레스테롤, 혈전등을 걱정하시는분
- 갱년기로 혈액순환장애를 우려하는 분
- 피부질환이나 위장기능의 개선을 원하는 분
- 전립선건강이나 심장병, 뇌졸중을 예방하기를 원하시는분

세종 뇌보감 골드

기억력개선,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보령제약 (보령 수앤수)개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세종뇌보감 골드의 특징

- 기억력개선 및 집중력 증대
- 치매예방, 뇌신경보호, 노화방지효과
- 혈행개선을 통한 만성피로 개선
- 학생이나 연구원 등 지식근로자의 뇌건강
- 인지기능향상 및 두통예방
- 혈액순환 개선

보령제약 임상 개발

세종뇌보감골드는 겔포스, 용각산 등으로 유명한 보령제약에서 임상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한국식약청 공인제품

한국식약청(KFDA)에서 기억력개선, 혈행개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정상유지 등의 효능을 공인받은 세종 뇌보감 골드

문 의: 213.383.8899
 주소 :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복음방송국 4층)

Cry4Life 생명을 위한 중보기도대회 개최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법 폐지’ 통곡대행진

Cry4Life 낙태법 폐지 워싱턴 D.C. 중보기도대회 및 통곡대행진이 1월 25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Cry4Life 생명을 위한 중보기도대회'에는 한인교계가 적극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영하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모인 중보기도자들은 오전 7시부터 DC 몰 중간지점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행진을 준비했다. 한인교계에서는 워싱턴교협(회장 김범수 목사), 메릴랜드교협(회장 윤종만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황의춘 목사), 매치스트라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뜨겁게 달궜다.

한인 목회자로는 이성자 목사가 '대법관들이 낙태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송창수 전도사가 '낙태가 하나님께 죄를 온 세계가 깨달아 알도록', 안지웅 목사가 '청년들이 낙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김성도 목사가 '낙태 경험자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김범수 목사가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최인환 목사가 '전 세계가 사랑의 문화 대신 생명의 문화를 추구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Cry4Life 생명을 위한 중보기도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낙태법 폐지를 위해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도록', 신동식 목사가 '낙태를 도운 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윤종만 목사가 '각 주의 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법이 폐지되도록', 전영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미국과 온 세계에 가득하길', 황의춘 목사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길' 등의 주제로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전국 책임을 맡은 David Andrade 목사와 Allan Parker 변호사가 준비했으며, 한국 코디네이터로는

전두승 목사(LA 시티 하베스트교회)가 섬겼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5천만명이 넘는 생명들이 낙태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법적 전쟁은 유사 이래 모든 전쟁보다 치열하다. 낙태와 연관되어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인 죄

책감이나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여자들의 숫자만 해도 해마다 수천에 달하고 있다. 이에 Cry4Life는 매년 워싱턴 DC에서 통곡대행진을 하며, 낙태법의 역사와 위험성을 알리면서 낙태법 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 www.Cry4Life.info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미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킨케어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1천불을 비웠더니 즉석에서 1천불이...

발췌는 청년 위한 비움에 채워짐도 체험



김연규 목사(사진 앞줄 맨 왼쪽)와 뉴욕비전교회 한인 청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비전교회(담임 김연규 목사)는 지난 1월 20일 주일예배 이후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체험했다. 양발이 썩어가고 있는 한인 청년을 돕기 위해 1천불의 현금을 지원하자 즉석에서 1천불이 다시 현금으로 채워졌던 것이다.

〈교회일보〉가 의뢰자원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위해 뉴욕비전교회는 주일예배 이후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또 성금과 함께 H마트 기프트 카드도 함께 기증했다.

중소형교회로 출발해 차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뉴욕비전교회는 목회자 사레비가 개척 이후 지금까지 채정되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재정상황이 계속돼 왔었다.

이날 전달된 1천 불과 기프트카드 또한 이미 마이너스 예산을 감안하고 성도들과 김연규 목사가 교회재정에서 각출한 것이다.

그러나 전달식을 가진 이후 뉴욕비전교회의 마이너스 재정은 그대로 채워졌다. 현장에서 감동을 받은 한 성도가 자발적으로 1천불을 다시 현금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성도가 H마트 기프트카드까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뉴욕비전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현장에서 비우고, 다시 현장에서 채워지는 오묘한 성경의 원리를 체험했다.

뉴욕비전교회 김연규 목사는 "그 동안 매년 2만불 이상을 책정하여 이웃을 위한 구제와 1.5세와 2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왔고 지난해에는 3만 3천불을 구제와 장학금 및 선교비로 사용했다"며 "교회의 재정 형편상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해 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대원 기자

밴쿠버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에 서영오 목사



서영오 목사

캐나다 밴쿠버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는 7일, 제 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서영오 목사(백석교회)를 선출했다. 서 목사는 캐나다에서 25년, 밴쿠버에서만 18년째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 부회장에는 임광수 사관(구세군한인교회), 총무에는 김성배 목사(메트로타운한인교회), 서기에는 나은수 목사(갈보리장로교회), 회계에는 권

영만 목사(선한목자교회)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회장 서영오 목사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큰 일을 하기 보다는 각 교회와 지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산하 97개 교회의 교류와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내달 25일엔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해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임기 동안 한일 운동을 비롯한 북한동포돕기 운동 활성화 등의 나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수 교계 “WCC의 본색과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NCCK측의 ‘공동선언 수용 거부’에 대해 일제히 비판

보수와 진보 진영 대표자들의 ‘WCC 공동 선언문’(이하 선언문)은 결국 ‘반쪽의 선언’으로 끝났다. 진보(에큐메니칼) 진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근산 회장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측 인사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언문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황재철 대표회장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4인은 그 동안 수 차례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의 화평을 위한 것인가 논의했고, ‘복음과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그렇게 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마련했는데, NCCK 회장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홍 대표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1200만 성도들은 NCCK가 어떤 단체인지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한기총은 앞으로 예정 합동과 고신, 합신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기독교학술원장)는 “(공동선언문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에큐메니칼 정신과 어긋난다고 본다”며 “에큐메니칼을 하나의 일방적 신학으로 전락시킨 꼴”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진보 진영의 반대 여론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일부 에큐메니즘 이해의 산물이자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복음을 떠난 에큐메니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NCCK의 회장이 좀 더 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모처럼 이뤄진 보수와 진보의 화합이 깨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앞으로 WCC 총회 준비는 복음주의의 협력을 얻지 못한

채 상당한 어려움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신대 부총장인 이상규 교수는 진보 진영의 반응에 대해 “예상 외”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선언문 발표 후 오히려 보수측 반대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였다”며 “WCC 총회를 준비하는 에큐메니칼측 입장에서는 보수측의 반대를 의식해 이번 선언문을 수용하고, 화합적 차원에서 총회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수측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의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선언문 발표 당시에도 WCC가 선언문의 내용대로 그들의 신학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신대 총장을 지낸 김인환 박사는 이번 선언문 사태에 대해 “WCC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 박사는 “NCCK를 위시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소위 ‘4대 원칙’에 대한 반발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자유주의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보수’하는 진보 진영은, 쉽게 변화를 용인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특히 복음주의적 성향이 보편적인 평신도들에게 있어 이 같은 진보 진영의 반응은 다소 의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보기에는 비로소 성사된 보수와 진보의 화합에서 진보 진영이 먼저 등을 돌린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복음주의적 입장에 있는 나로서는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WCC와 에큐메니칼 진영이 다소나마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를 진보 진영이 먼저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개신교 밖의 타종교에 대한 관대하면서도 정작 개신교 안에 있는 보수·복음주의에는 관대하지 못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CC 총무 “개종전도 금지, 이번 총회서 논의할 것”

방한 기자회견 도중 공동선언문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



WCC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가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WCC 아시아 담당 김동석 목사, 트베이트 총무, 캐나다오스 WCC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준비를 위해 방한한 WCC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총무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목적과 총회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WCC 공동선언문’(이하 선언문)에 대한 트베이트 총무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언문과 관련해 분명한 찬반 의견은 표명하지 않으면서,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WCC가 (선언문 사태와 같은) 현안들을 바라보고 연구할 때는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각각의 목소리들을 경청한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간 기독교 전통에 비춰 해당 사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고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회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과정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난관을 또한 발생한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일부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선언문에 담긴) 4가지 사안 등은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라, 새로운 현안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선언문에 포함된 일명 ‘개종전도금지 반대’에 대해 트베이트 총무는 “(WCC 10차 총회의) 21개 대화 가운데 선교 부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함께 자리

한 캐나다오스 WCC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구현돼야 한다. 개종전도라는 온전하지 못한 방법을 통한 전도와 개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 “총회 준비의 전반적 과정을 4개 WCC 회원교단을 비롯한 에큐메니칼 교회들과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오스 위원장은 이번 WCC 제10차 총회에 대해 “올림픽과 같은 축제나 그런 성격의 행사는 아니”라며 “우선적으로 교회들의 모임으로서 기도와 교제가 목적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기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 속에서의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10차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염두하고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화해된 교제”라며 “WCC를 오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그저 상징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된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한한 트베이트 총무는 WCC 회원교단 지도자들과 WCC 총회한국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정부 관계자와도 면담을 갖고 WCC 총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 전진대회에 참석하는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내달 1일 출국한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용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김성민 담임목사</p> <p>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6:3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김수철 담임목사</p> <p>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더문터문 47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p> <p>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최윤형 담임목사</p> <p>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p>
<p>박승부 장로</p> <p>17,271수려생태촌, 현재371수려생 양생중 -수기치료의민선교사 양성 -아름다운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를 하는 의술</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김혜성 담임목사</p> <p>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p>	<p>류종길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p> <p>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초 정신의 흐름, 비르교회간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p> <p>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차유와 화백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말씀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p>박병구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성재복음선교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598-9932, (213) 327-9200</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p>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 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돌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 사랑을 뜨겁게 사명하여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기나누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화성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토/일)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심형섭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1:00 제자훈련 (수) 오후 8: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 (목)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성령집회 (금) 오후 8:00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유익과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 영생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이란, '전도했다는 이유로' 아브디니 목사에 '징역 8년'

美법과정의센터 “이번 판결은 정의에 대한 조롱”



사이드 아브디니 목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미국인 사이드 아브디니(Saeed Abedini·32) 목사가 이란 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사이드 아브디니 목사는 이날 이란 법원에서 기독교 전도 활동으로 이란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브디니 목사는 현재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같은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미국 국무부는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면서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비 올라데이 국무부 대변인은 “아브디니 목사의 변호인이 단 한 차례밖에 변론하지 못했다.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 당국의 계속된 종교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아브디니 목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브디니 목사의 구명 활동을 해 온 '미국 의 법과 정의 센터(America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 역시 “이번 판결은 정의

에 대한 조롱”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CLJ는 “처음부터 이란 당국은 재판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 이란은 자국법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인권의 기본원칙을 짓밟았다. 전 세계 시민과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아브디니 목사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아브디니 목사는 20세 때 이란의 극단주의적 무슬림 단체와 함께 자살 폭탄 테러 훈련을 받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후 2002년 아브디니 목사는 이란에 있는 미국인 여성을 만났고, 2005년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까지 기독교 지도자로서 함께 동역했다. 아브디니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고, 아이다호의 보이시에서 거주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기독교로 귀의한 후, 이란에서 무슬림들도 예배에 참석 가능한 지하 가정교회들을 열어, 작지만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등 존경받는 리더로 활동해 왔다.

강혜진 기자

이슬람이 금한 돼지고기 팔았다고... 테러로 18명 사망

나이지리아를 이슬람화하려는 '보코 하람' 의 소행인 듯

이보코 하람(Boko Haram)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가 최소 23명을 이슬람법(샤리아)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BBC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과 22일 나이지리아 북동쪽에서 무슬림들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과 이슬람법에 반하는 도박에 연루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각각 발생했다.

보코 하람은 나이지리아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내쫓고, 나이지리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단체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총기를 난사해 목사가 사망하는 등 2년간 1,4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을 살해했다.

지역 관리에 따르면, 첫번째 테러는 보코 하람의 활동지역 중 하나인 보르노 주의 담보아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괴한이 돼지고기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그는 “보코 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시장에 다가가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현장에서 죽고, 5명은 병원으로 실려가던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나이지리아 북쪽의 카노시에 나타나 보드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 5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들은 쿠란의 샤리아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 혐의자들였다.

보코 하람은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북쪽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를 이슬람으로 바꾸기 위한 그들의 계획에 반하거나 거슬리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공격하고 있다.

보코 하람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정부를 대신해 이슬람 정부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교회를 비롯한 나이지리아 정부, 안보 기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슬람 테러조직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교회를 공격해 12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했다. 그러나 1월에는 나이지리아군의 공격으로 13명이 부상당했다.

미 국무부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코 하람 조직 전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최근 종교와 지정학적인 기준에 따라 나뉜 상태로, 기독교인들은 남부 지역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보코 하람이 2010년부터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전까지 상대적인 평화 속에 공존해 왔다.

강혜진 기자

말레이시아 기독교-이슬람 '알라' 갈등 고조

말레이시아에서 '알라(Allah)'라는 호칭을 둘러싸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기독교연합과 교회협의회는 이슬람 유일신에만 '알라' 호칭을 쓸 수 있다는 이슬람교계의 원칙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로 표기해 왔다. 이에 현지 기독교계는 대다수 비이슬람 주민들도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슬람교계에서도 이를 존중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모슬렘 단체를 이끄는 국회의원 이브라힘 알리는 모 방송에서 “모든 이슬람교도는 기독교의 신을 알라로 표기한 성경을 불태워야 한다”면서 선동을 일으켰고, 급기야 몇몇 단체들은 '성경 화형식'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쟁쟁한 긴장이 고조됐다.

현재 당국은 엄중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지난 27일 화형식이 예정된 장소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아 행사는 불발됐다.

미국서 가장 성경적 도시는 테네시 낙스빌

10개 중 8개 도시가 동남부 바이블 벨트



테네시 낙스빌

미국에서 "성경을 가장 마음에 두는 도시"는 조지아 인근의 테네시 낙스빌로 꼽혔다. 2위 루이지애나 슈레브포트, 3위 테네시 차타누가, 4위 알라바마 버밍햄, 5위 미시시피 잭슨, 6위 미조리 스프링필드, 7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동 8위는 버지니아 로노크와 링크버그, 9위는 알라바마 헨츠빌, 10위는 웨스트 버지니아 찰스턴 순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바나 그룹과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ABS)가 지난 7년에 걸쳐 공동으로 4만2,855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ABS의 최고홍보책임자인 제프리 모린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상위권에 오른 도시들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유일무이함을 믿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동남부 지역은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무려 8개가 속해 있어, 명실공히 '바이블 벨트'의 위상을 입증했다.

모린은 "바나 그룹과 ABS가 지속적으로 미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시각과 (신앙의) 상호관계를 증명해내는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리스트는, 처음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성경적인 도시를 간추려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낙스빌 지역에서 멀티 사이트 처치인 페이스 프로미스 처치의 Dr. 크리스 스티븐슨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도시가 가장 상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다"고 표현했다.

그는 "낙스빌에는 실제 좋은 교회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각 교회에는 훌륭한 회중들이 있어 힘을 합쳐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는 이들을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스티븐슨 목사는 각 교회들이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일함으로 (사역을) 완성해가길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 프로미스 처치만 해도 낙스빌 지역에만 약 300명의 성인들이 참여하는 성경공부 그룹들이 있으며, 이웃들과 소인종 그룹에도 성경공부 그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테네시 중심부에 복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장 성경을 마음에 두지 않는 도시" 공동 1위는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메사추세츠의 뉴 베드포드, 2위 뉴욕 알바니, 3위 버몬트 버링톤, 4위 메인 포틀랜드, 공동 5위 커네티컷 하트포드와 뉴헤이븐, 6위 메사추세츠 보스턴, 7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8위 아리조나 피닉스, 9위 아이오와 세데라피즈, 10위 뉴욕 버팔로로, 동북부 도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혜진 기자

“오바마케어, 종교자유 침해” 美 업체들 소송 잇따라

직원들 낙태 및 피임에 필요한 보험 비용 강요에 반발



피콜리어에 위치한 제조업체 Sioux Chief 전경.

미주리의 한 배관 생산업체가 미 연방 정부의 새로운 의료서비스(Affordable Care Act) 반대 운동에 합류했다.

피콜리어에 위치한 제조업체 Sioux Chief는 지난주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현재 이스머트(Ismert)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이스머트 가족은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건강보험수정법안(오바마케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Sioux Chief 변호인단에는 자유옹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소속 케빈 H. 테리엇(Kevin H. Theriot), ADF의 협력 변호사 조나단 R. 화이트헤드(Jonathan R. Whitehead)도 포함돼 있다.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성명에서

“비슷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은 미국 종교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법적인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법안은 가혹한 벌금과 부담금 협박으로 원고가 가톨릭 신념을 위배하도록 불법적·비헌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미국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신앙에 따라 살면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천부적인 자유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선조들은 항상 이를 지켜왔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유지를 위해 신앙을 무시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부절적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수십여개 업체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예품 체인점인 하비로비(Hobby Robby)社は 오바마케어가 직원의 낙태 및 피임에 필요한 건강보험 비용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시킨 바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포함된 경구피임약은 수정된 난자, 즉 생명체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낙태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특히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등 종교단체에는 이 조항을 면제시켜 주지만, 기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메간 폭스 “방언 기도는 성령의 증거” 고백

오순절 교회 출석... 8살 때부터 방언으로 기도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연 배우 메간 폭스가 미국의 주류 패션잡지 에스콰이어 2월호에서 자신의 교회 생활과 방언에 관해서 언급했다.

메간 폭스는 브라이언 오스틴과 결혼한 이후, 지난 9월 아들을 출산하고 교회 생활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폭스는 테네시 주의 한 오순절 교회에 출석했으며 8살 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다.

그녀는 방언에 대해 “그런 마치 엄청난 힘이 나의 머리 끝으로 치솟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방언의 소리만 들으면 좀 미친 것 같기도 하지만 온 몸이 전율을 느낀다. 방언을 할 때 분명 당신은 말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다. 이것이 하늘에서 말하는 언어이며 성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 잡지에서 자신이 섹시 아이콘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난 그렇게 정의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O.C. / 엘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니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어장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순절(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1부 예배 오전 9시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영어예배(1부) 오전 9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금요철야

배명환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956-7640 F. 714-956-7909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중교동부 오후 3시 금요철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라클센터)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라클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6:00(토)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라클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 미라클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엘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청년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온전케 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vation, 생명의 사랑과 감동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읽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저씨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목요일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방, 세탁,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불/ea + tax

세일까지: 2월15일까지

프로모션 A 세일까지: 2월15일까지

프로모션 B 세일까지: 2월15일까지

프로모션 C 세일까지: 2월15일까지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or 오리지널8병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100% 환불 보장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약은 일제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침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와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고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용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닌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제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구원의 확신

R.C.스프롤 | 생명의말씀사 | 128쪽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가? 그 확신은 참된 확신인가, 잘못된 확신인가? 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일까?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논란이 많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담았다. 믿음의 열매이자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

크리스 웹 | 예수전도단 | 280쪽

레노바레 전 대표인 저자는 여러 성인들과 수도원 공동체들의 묵상 방법들을 통해 수십 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혜를 제시한다. 몇백년을 훌쩍 뛰어넘는 이론과 방법들이지만, 어렵거나 생소하지 않게 성경 속 모든 의미의 층이 결국 예수님으로 겹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묵상방법 소개'를 넘어선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

임택규 | CLC | 472쪽

책을 정독하고 발견된 교리를 마음 속에 새기면 그리스도의 복음 체질로 변화된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신앙의 중심은 스토리가 아니라 교리이며, 우리는 스토리 참여가 아니라, 교리가 밝히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권능으로 산다.



보석비빔밥 가정예배

백흥영, 최지혜 | 주니어 아가페 | 456쪽

한 가지 말씀으로 일주일(6일) 동안, 하루에 한 걸음씩 노래하고 놀이하며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다양하고 기발한 오감만족 활동으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려서 고민인 부모님! 주일학교 교사!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친해지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에게 강추.



REVIEW

1년, 존 스토트와 함께 교회력을 따라 성경 묵상하기

존 스토트(John R. W. Stott)의 <나의 사랑하는 책>은 교회력에 따라 성경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그의 '평생의 역작'이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는 수년간의 작업 끝에 지난 2006년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교회력'에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탐구하면서, 기독교의 주요 필수 가르침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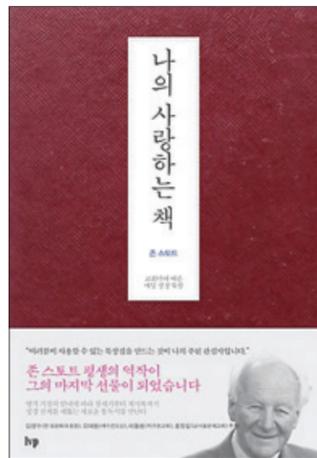
존 스토트는 개인이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묵상집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제1부 '천지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창조 기사부터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구

약 이야기를 되새기게 해 주며, 9월 초부터 성탄절까지 기간 총 17주 동안 묵상할 수 있다.

제2부 '성탄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복음서를 묵상하는 기간이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끼여있는 이 기간(1-4월)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되새기게 해준다.

제3부 '오순절에서 재림까지'는 신약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야기로, 5-8월 묵상할 수 있다.

존 스토트는 "교회력은 이처럼 세 기간으로 전개되고, 성경도 세 부분으로 나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



존 스토트 | IVP | 436쪽

이 드러난다"며 "그 뿐 아니라 각각 세 가지로 구성되는 교회력과 성경과 하나님의 삼중 구조는 건전한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서로 겹치되고, 성경 이야기 전체가 여기 포함된다"고 전한다.

그는 "우리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해마다 상고하고 되살아내며 축하하면서, 온전하고 균형잡힌 삼위일체 신앙을 갖게 된다"며 "또 성경의 틀과 내용에 더욱 익숙해지고, 역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회력에 따른 묵상이기 때문에 책의 첫 장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1-3부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 새해를 맞아, 존 스토트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기회다. 이대용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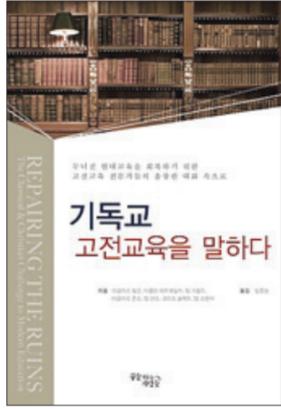
황폐화된 교육현장, 해답은 '기독교 고전교육'에 있다?

고전교육 전문가들의 <기독교 고전교육을 말한다>

기독교 고전교육을 말한다(DCTYBOOKS)에는 '무너진 현대교육의 회복을 위해 고전교육 전문가들이 성경적 세계관, 고전적 지성, 효과적인 적용 등을 써내려간 글들이 담겨 있다. 책에서는 현대 교육방법과 고전교육의 트리비움(고전교육 방법)의 차이점, 고전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대안인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전교육의 기본 구조는 '3가지 길'이라는 뜻의 트리비움(Trivium)이다. 트리비움은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산술·기하학·천문학·음악 등 '4가지 길'인 콰드리비움(Quadrivium)의 예비과정으로서 문법과 논리학(논법), 수사학(웅변) 등 3과목을 의미한다.

첫번째로 문법(Grammer stage)은 보통 언어에 대한 연구를 이르지만, 여기서는 각 과목마다 존재하는 기초 원리 또는 기본 원칙을 뜻한다. 다음으로 논리(Dialectic stage)로, 형식 논리를 공부하면서 정확한 용어 정의의 중요성과 다양한 생각을 조직화하는 법,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법, 다른 이들의 논증에 존재



더글러스 윌슨 등 | DCTYBOOKS | 352쪽

하는 오류들을 간파하고 규명하는 법 등을 배운다. 마지막 수사(Rhetoric stage)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개념을 기록·구술 형태로 둘 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법과 웅변적으로 호소하는 법을 이해하게 된다.

고전교육 학교인 로고스학교(Logos school) 교감인 탐 스펀서는 이를 설명하는 7장 '고전교육 모델: 트리비움'을 통해 "여기

서 여러 과목들을 배우지만, 최종 목표는 '각 과목들'을 공부하는 자체가 아니라 '학습 도구'를 쥐어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각 단계를 마치고 나면 개별적인 과목을 공부하는 콰드리비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 로고스학교 설립자인 더글러스 윌슨(Douglas Wilson)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

육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지만 건강한 경외심은 모든 교육의 근본이고, 이 근본은 그에 따라 온갖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라며 "기독교 학교란 모든 교육활동이 성경적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곳이어야 하고, 믿음과 불신앙 사이의 성경적 대조에 관한 이해가 커리큘럼 전반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생각하고 교육하는데 있어 불신자처럼 하든, 신자처럼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교육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한낱 이상일 뿐으로, 진정한 교육은 반드시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책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한 징계', '적용 사례: 성경적 세계관과 수학 수업', '논리학·라틴어·역사·문학·수사학·변증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 '기독교 학교로서 모범과 섬김', '학교와 부모의 소통', '공교육의 흥망성쇠' 등 다양한 주제로 기독교적 고전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인물로 쉽게 배우는 '만화 경제학' 출간

수많은 경제상식의 근본을 이루는 경제학, 그러나 생소한 용어와 괜히 무게 잡는 전문서적에 질려 공부를 손놓아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름썩은 누구나 아는 유명 경제학자들, 하지만 그들의 이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물로 배우는 경제 입문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만화 경제학>이 출간됐다. 책은 경제학의 기틀을 세운 애덤 스미스부터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밀턴 프리드먼까지, 경제학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경제학자 여덟 명을 현재로 소환해 이론을 쉽게 핵심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부터, 맬서스의 <인구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셜의 '수요공급곡선'과 '한계효용의 법칙', 케인스의 '정부개입론', 프리드먼의 '통화이론' 등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치열한 공방전과 경제학의 진화과정을 한



조립식, 조유희 | 길벗 | 2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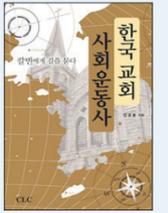
눈에 볼 수 있다. 책은 과거의 이론을 복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리카도의 자유무역 이론이 국가간 양극화 문제와 FTA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케인스의 정부지출이 오늘날 어떻게 변주되고 적용되는지 등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현안과 주요 논점까지 놓치지 않고 다루었다. 때문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중요 이론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사건과 경제흐름을 꿰뚫는 눈을 가질 수 있다.

김은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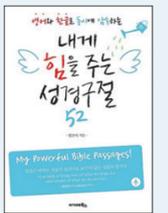
책꽂이

한국교회 사회운동사
전준봉 지음 | CLC | 488쪽



이 책은 한국교회가 추종하고 있는 칼빈의 사상을 갖대로 삼아 한국교회 사회운동의 지향점을 찾아본다. 또 자성적 칼빈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교회의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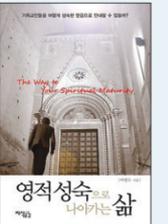
내게 힘을 주는 성경구절52
원수미 | 아가페북스 | 288쪽



이 책은 힘과 소망을 주는 52구절의 말씀을 13개의 주제로 나누어 매주 한 구절씩 1년 동안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암송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주에 한 구절씩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적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이영두 | 지식공감 | 304쪽



이 책은 성도들 각자가 영적성숙을 위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4개 항목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교회지도자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성경본문과 이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바울 서신

로이 씨애파 외 | CLC | 632쪽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어떻게 신약이 구약을 사용하는지, 특히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고 암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약저자들이 구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였고 심오한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0%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한국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의 후손들로, 한국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보통 개신교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제물포를 통해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 언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까? 이것은 학자들 간에도 이분 이 많다.

일부 학자들 간에 더러는 한국기독교의 시작을 경교(景敎)의 한국도래로 보기도 한다. 그럼 경교란 무엇일까? 경교란, 중국 당나라 때 초기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하나인 네스토리아니즘(Nestorianism)을 지칭한 것이다.

주후 4세기 초, 콘스탄티노플(현재 터키의 이스탄불) 교구 감독은 네스토리우스(Nestorius)였다. 그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당시 교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던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Christo-tokos)라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교회 안에 큰 논쟁거리가 되어, 주후 431년 에베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교회회의가 소집되

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유배된 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중 일부가 페르시아(현재의 이란)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를 양성하여 각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7세기 초, 알로펜(아브라함)이란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과 더불어 인도를 거쳐 중국 땅에 이르렀다. 당시 중국은 당나라 태종 때였는데, 태종은 멀리 서역에서 온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알로펜은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 말씀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태종과 신료들은 이들이 빛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이 종교가 "빛의 종교"(Luminous Religion) 즉 경교(景敎)라 명명하였다. 또한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이므로 "파사교"(波斯敎), 이 종교의 근원지가 로마 즉 대진(大秦:중국에서는 로마를 대진이라 불렀다.)이라 하므로, "대진교"(大秦敎)라 부르기도 하였다.

태종은 알로펜에게 진국대법주(秦國大法主)라는 관직을 수여하고, 10도와 385주에 경교 사원 건립을 하명하였으며, 성탄절에는 향과 음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식을 하사하고 축하해 주었다. 태종 이후의 황제들도 경교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경교는 당나라에서 약 200년간 크게 번창하였다. 각 성에 성당이 건축되었고, 열성적인 전도인들에 힘입어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태종 때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 무종이 등극하면서, 그는 중국에도 좋은 도(道)가 많은데, 왜 외국 종교가 판을 치느냐며 모든 외래 종교에 추방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왕성하게 퍼져 나가던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 외래 종교가 철퇴를 맞았다. 경교도 외래 종교였으므로 모든 성당이 폐쇄되고, 3천명 이상의 신부들이 추방을 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이로써 경교는 중국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

다. 경교가 중국에서 약 200년간 번창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거의 1천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1625년, 중국의 시안(西安) 근처에 사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 거대한 검은 대리석에 수많은 한자가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이 비석은 경교와 한문에 뛰어난 경교사 아담(Adam, 景淨)이 황제의 윤허를 받아 비문을 제작하여 781년에 세운 것인데, 외래 종교 박해 시 누군가가 땅 속에 파묻어 둔 것이었다.

이 비문에는 주후 635년, 알로펜이 중국에 당도했고, 당시 당 태종의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때 당도 했던 알로펜을 위시한 수도사들의 이름이 시리아어로 새겨져 있었다. 이 비석으로 인해 경교가 중국에 당도했던 일과 200년간 선교가 흥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 경교가 조선에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만약 한국에 경교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한국 전래로 한국 기독교의 시발점이 주후 7-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 터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당나라와 신라는 교역이 많아,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불교와 중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유학생이 많이

드나들었고, 두 나라 조정 간에 협력 또한 긴밀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라와 당나라군이 연합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백제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봐서 경교가 당나라에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 신라에 유입됐을 것이라 추정한다.

또 한 가지 근거는 1956년, 신라시대 사찰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돌 십자가가 하나 나왔다는 것이고, 관음보살상, 나한상 등에서 경교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인정된 사료(史料)가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 돌 십자가가 나왔다고 그것이 경교의 흔적이라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불상에서 경교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중국의 경교비와 같이 한국에 경교가 전래되었다는 직접적이고도 움직일 수 없는 사료가 나오기 전에는 경교의 한국 전래에 대해 단언 할 수 없다. 중국에서와 같이 지금부터 1천년이 지난 후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경교비가 나온다면 그 때 가서 따져 볼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교회 시작을 경교 전래로부터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계속>

세무상식 <현금>

수입에 비해 많은 현금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근거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납세자들이 간혹 있다. 현금 액수가 250불 미만일 때는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와 현금 증명서를 받아두면 된다.

1회 현금 액수가 250불이 넘는 경우에는 매번 현금만 단계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이때 현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받은 현금에 대해 값이 나가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영수증에 명기해야한다. 또 한 가지 주의 사항은 현금 영수증의 날자는 세금 보고일 이전에 발행된 것이

어야한다. 세월이 지난 후 국세청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 발행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공제에 해당되는 현금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교회나 비영리단체를 위해 봉사 일을 했다면 본인이 지불한 물품과 재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 거리 마일당 14센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의 인건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선교 여행에 들었던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선교여행과 관광여행 두 가지가 혼란이 되었다면 걱정할 기록과 자료를 분류 구비하여 보관해



김인호 CPA

된 기관을 통해 그 선교단체로 현금을 하는 방법이 좋다.

같은 맥락으로 선교사들에게 직접 현금하는 경우 그 선교사가 미국의 자선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세금보고서에 공제할 수 없다. 즉 한국교회에서 제3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한다면 한국교회는 미국세청의 승인기관이 아니므로 공제혜택이 없다. 미국의 승인된 기관을 통해 그 선교사에게 현금이 전달되도록 한다.

현금이 아닌 물품을 헌물할 때 500불 미만의 경우 영수증을 보관

한 후 본인의 추정 값어치를 항목공제 할 수 있다. 500불 이상 5,000불 미만의 물품인 경우 <Form 8283>을 사용하여 언제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를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500불 이상 값어치의 자동차나 보트를 헌물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단계로부터 적절한 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비영리단체에서 자동차나 보트를 처분했다면 그 가격을 헌물한 사람에게 30일 안에 통보하여 해주어야하며 해당 확인서는 개인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에 보고한다.

▶문의: (562) 467-1114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류재규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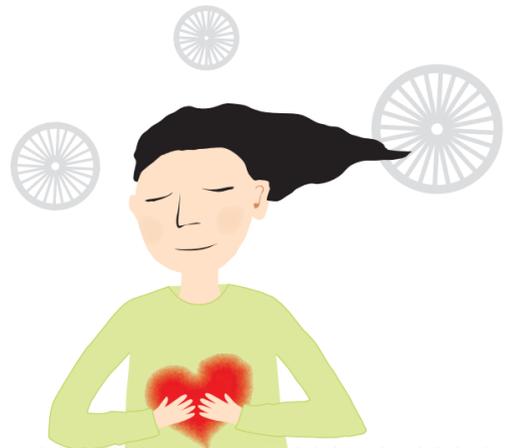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HEALTH & LIFE

영혼을 쪼먹는 불안증

그리스도인이여,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와 성장을 누리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올라와요.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안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항상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위와 같은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의 두려움을 칼 용은 '멈출 수 없는 총알이 관통할 수 없는 벽에 가서 닿은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두려움인 동시에 현재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곳으로부터 초대받은 긍정적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긍정적 성장 자원으로 전환하기까지 깊은 치유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극심한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던 한 30대 후반의 직장인은 '사 무실이나 집안에 있으면 심장이 부서지듯 아프고 두근거리고 두통과 함께 불안감이 매우 심하다'고 호소하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한 원인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되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장애는 신경증의 대표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크게 나누어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구분하게 됩니

다. 여기서 신경증이라는 말은 영어로 neurosis로써 글자 그대로를 받은 한 독일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이로제'라는 말이 됩니다. 신경증의 핵심이 불안장애입니다. 불안 장애라는 공식 명칭이 등장한 것은 DSM-III(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분류집인 DSM의 1980년대 제 3차 개정판)에서 분류되었습니다.

이 불안에는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는 감정의 한 형태이며 비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안은 적절하게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맹수가 지나가는데 불안을 못 느낀다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의 감정은 자신을 지키는 본능적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영혼을 잠식하게 됩니다. 불안이 심해서 심장이 심하게 뛰거나 호흡곤란, 소화불량, 복통, 두통,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적인 불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증 등의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지난해 '틱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

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4년 전보다 21%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환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이 여학생의 4배에 육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이의 불안증이 틱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장애를 보일 때 나쁜 행동이라며 혼을 내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달 이상 증상이 계속 된다면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 보아야 합니다. 틱장애의 30~50% 정도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강박증, 불안강박, 학습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증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양육자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자극으로부터 어린 아이를 잘 보호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 마음 속에 새겨지고 또 새겨진 것입니다. 부모는 아기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잘 차단해 주고 안정과 안전을 제공 해주어야 합니다. 유아기의 잘못된 양육 태도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불안증의 요인을 영혼에 심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어린이는 너무 일찍 세상을 무서워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어린 시절을 재연하게 해서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어린이의 불안을 치료하고 자아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는 환자에게 최상의 안전과 안정을 제공해야 하며 조금씩 무의식의 불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각해진 불안증의 치유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게 하고 내면 깊은 곳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얽혀 있던 불안을 풀어내고 새로운 불안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회피해 오던 문제에 선전포고하듯이 정면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해서 생기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가 '회피'입니다. 회피하면서 살다보니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장애가 생기고, 커져가고, 영혼을 쪼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말하는 내용이지만, 마음의 치료는 치료자의 '치료적 마음'이 환자의 아픈 마음에 닿을 때 일어납니다!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

지 않고 회피하고 미루어왔기 때문에 누적되어 병적인 불안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치유는 치료적인 마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치 외과의사가 장기를 헤치고 작은 종양들을 찾아내어 잘라내듯이 고난이도의 집중과 탐색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심리치료는 어린 시절의 양육과정에서 어떠한 상호작용관계에서 어떻게 자아가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모르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정직하지 않게 되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경증에 걸리지 않게 하는 핵심입니다. 불안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불안을 다스리고 우주만큼 넓은 마음을 탐색하고 진정으로 불안으로부터 놓여나고 자유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 주시고 -이사야 14:3-"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목사

어지럼증! 치료의 필요성 느껴야, 쉽게 봤다간...

꾸준한 운동 · 스트레스 관리로 예방 가능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때문에 어지럼증 자체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적 기능들이 다소 저하되면서 균형감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자주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뇌질환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지럼증의 약 20% 가량은 뇌경색 등의 뇌졸중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임상에서 보아도 어지럼증, 두

통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풍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풀과나무한의원의 김제영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원인별로 풍운(風暈), 열훈(熱暈), 담훈(痰暈), 기훈(氣暈), 허훈(虛暈), 습훈(濕暈),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운의 항진과 저하로 또는 심장의 화열(火熱)로 인해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며 "어지럼증은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하고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며 타 병인에 의한 제반증상일 수도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자 추세를 살펴보면, 정확

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능적인 어지럼증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한방기능검사(EAV)를 실시한 결과, 간 기능과 위장의 이상소견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염된 환경이나 음식, 약물 남용,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능적인 어지럼증은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이다.

간의 열, 신장기능 이상 등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어지럼증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열이나 노폐물이 어혈을 만들어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 만성어지럼증이나 만성두통을 유발하기 쉽다. 이 경우 증상이

수년 혹은 수십 년 이상 이어질 수 있으며 집중력장애, 불면증, 만성피로, 이명, 뒷골뻐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풀과나무한의원의 김제영 원장은 "한방에서는 열을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내복요법을 이용해 치료한다"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도 불구하고 자주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평상시 스트레칭이나 산책과 같은 꾸준한 운동과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로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생활한의학

미국인 통 양의 통계

통계 내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통의 양도 통계를 내겠다고 합니다. 1950년부터 30년 동안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 미국인 통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식사량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와 함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요즘의 알 수 없는 질환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의 식사의 질은 쇠이섬유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채식양을 많이 늘리도록 합시다.

입보다 똥구멍을 먼저 생각하자

먹는 것보다 싸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질보다 싸는 것의 질을 더 생각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양보다 싸는 양에 더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잘 먹기도 중요하지만, 한 층 더 중요한 것은 잘 싸야 건강합니다. 잘 비워야 잘 채울 수 있습니다. 하량한의원 박용환 원장

WIN HYUNDAI at El Monte

<p>VERACRUZ Limited 2012</p> <p>1 at this offer VIN# NCU187566</p> <p>MSRP.....\$35,62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Competitive.....\$1,500 Other rebate.....\$1,500 Total drive off.....\$6,995</p> <p>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ANTA FE SE AWD 2012</p> <p>1 at this offer VIN# NCG137195</p> <p>MSRP.....\$32,56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Competitive.....\$2,000 Other rebate.....\$1,000 Total drive off.....\$5,995</p> <p>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ONATA GLS 2013</p> <p>1 at this offer VIN# H2H663390</p> <p>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4,995 Other rebates.....\$1,500 Competitive.....\$500</p> <p>Lease \$89 per month plus tax</p>	<p>ELANTRA GLS 2013</p> <p>5 at this offer</p> <p>MSRP.....\$19,015 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3,995</p> <p>Lease \$79 per month plus tax</p>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2월 11일까지입니다.

Tel. 888.409.3002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나바호 족의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모뉴먼트 밸리

대자연의 숨결이 빚어낸 풍광... 바라보는 이의 넋을 빼앗는 낭만

'나바호 부족의 신성한 땅', '황량함과 낭만이 교차하는 서부영화의 고향' 등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모뉴먼트 밸리' 는 그 수식어 그대로 수많은 서부영화의 산실이었고 현존하는 최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나바호(Navajo) 족의 신성한 삶의 터전이다.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 서부영화의 향수와 나바호 족의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모뉴먼트 밸리를 만나보자.

▶모뉴먼트 밸리

모뉴먼트 밸리는 애리조나 주와 유타 주에 걸친 1,600만 에이커의 광대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다. 정식 명칭은 '모뉴먼트 밸리 나바호 부족공원'(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이다.

현재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는 5개의 부족 공원이 있다. 정부는 이 지역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나바호 족 자치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다. 모뉴먼트 밸리는 나바호 족 자치정부에 의해 1958년 7월 부족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관광객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낮은 지대의 분지구조였던 이 지역은 지난 몇 억년 동안 록키산맥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지층을 이루고 지각이 움직이 되면서 콜로라도 대고원지대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고원지대는 다시 바람과 눈과 비 등에 의해 갈라지고 거석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현재의 풍경을 이뤄진 것이다.

대자연의 숨결이 빚어낸 모뉴먼트 밸리는 황량함 뿐만 아니라 낭만이 가득한 곳이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황야와 5-6층 건물 높이만큼 우뚝 솟은 바위기둥의 형상은 황량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거대한 성채같은 바위기둥도 있고 금세 쓰러질 듯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도 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황야가 노을로 물들어 갈 때 바위기둥들은 석양을 받아 황금 기둥이 되고 하늘과 땅은 기묘한 붉음으로 색을 갈아 입는다. 황량한 대협곡에 펼쳐지는 빛의 파노라마는 방문객의 넋을 빼앗는 낭만이 깃들어 있다. 붉은 대지, 하늘을 찌를 듯 비틀어진 채 서 있는 바위 기둥과 언덕 그리고 지평선이 어우러져 연출하는 기이한 경치는 황량함을 낭만으로 승화시킬 만큼 큰 감동을 선사한다.

▶나바호 족의 슬픈 역사

현존하는 북미 최대 원주민 부족이며, 약 18만여명이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다. 보호구역 크기는 웨스트 버지니아 만하고 그들은 보호구역을 나바호 국가라 부른다. 또한 자신들의 언어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도 가지고 있다. 나바호 족은 환경에 순응해 백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들만의 규율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모뉴먼트 밸리 남쪽에 위치한 카엔타

(Kayenta)는 보호구역 내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인디언 마을인데, 모뉴먼트 밸리 내에는 주유소가 없으니 이곳을 꼭 들리자.

1860년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해 자행된 원주민 섬멸작전은 나바호 족의 슬픈 역사의 시작이다. 당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서 섬멸되고 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포로들은 뉴멕시코 주의 합중국 포로수용소로 장장 350마일을 끌려갔다. 아메리카합중국의 대표였던 서먼 장군은 이들과 협상에서 3곳의 선택권을 주었다.

동부의 비옥한 초지와 포로수용소 인근의 목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한 곳이 바로 모뉴먼트 밸리였다고 한다. 나바호 족은 선조의 얼이 살아 숨쉬는 모뉴먼트 밸리를 택했고 나바호 족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된 계기이다.

보호구역에는 관광객들이 꼭 지켜야 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그들의 모습이나 생활상을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해서는 안되며 주류를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또한 지정된 도로로만 이동해야 한다. 사진촬영은 적당한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하다.

▶서부영화의 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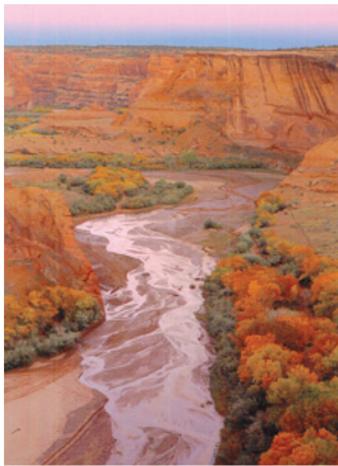
모뉴먼트 밸리가 선사하는 놀라운 시각적 경험은 생각의 흐름을 멈출 만큼 강력하지만 낯설음 보다는 친숙함을 준다. 이는 수많은 영화, TV 광고, 달력, 엽서 등에서 접한 풍경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은 수많은 서부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네 차례나 수상한 서부영화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은 모뉴먼트 밸리에서 불후의 명작 '역마차', '황야의 결투'등을 만들어 냈다. 존 포드 감독이 즐겨 촬영했던 장소는 지금도 '존 포드 포인트'라 불리며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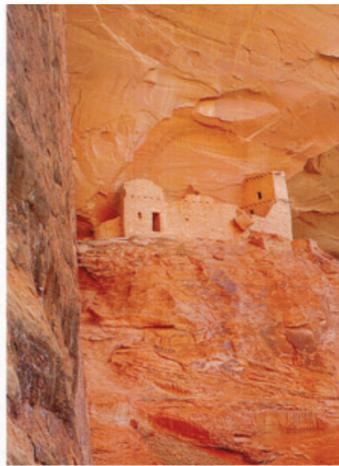
드넓은 대지에 널려 있는 바위기둥은 '뷰트'와 '메사'로 불린다. 단단한 바위가 약한 바위 위에 투구처럼 얹혀져 있고 약한 바위가 더 많이 침식되면서 절묘한 형상을 이루는데 이것을 '메사'라 부른다.

'메사'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 작아지면 '뷰트'가 된다. 석양에 물든 '뷰트'와 '메사' 그리고 말을 타고 질주하는 고독한 총잡이,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서부영화 포스터에 즐겨 등장하는 장면이다.

모뉴먼트 밸리는 백인 이주자들에게서 서부 개척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서부영화의 고향이다.



모뉴먼트 밸리



▶모뉴먼트 밸리의 뷰 포인트 (View Point)

모뉴먼트 밸리 관광은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뷰 포인트(View Point)를 방문해 '뷰트'와 '메사'를 감상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 지역은 크게 방문자 센터 일대, 굴딩(Goulding) 지역, 밸리 드라이브 지역으로 코스를 나눌 수 있다.

▶방문자 센터 일대

모뉴먼트 밸리를 한눈에 살펴보고 싶다면 방문자 센터를 방문하자. 방문자 센터는 163번 도로를 타고 모뉴먼트 밸리 일대에 들어서면 진입로 끝에 호텔이 있다. 이 호텔 건물 왼쪽 계단을 오르면 방문자 센터가 있다. 건물 뒤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면 모뉴먼트 밸리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대가 있으니 숨막히는 전경을 여유있게 감상하자.

이 지역은 모뉴먼트 밸리에서 가장 거대하고 상징성이 강한 '메사'와 '뷰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163번 도로의 좌측에 위치한 '이글 메사', 우측에 위치한 '새들백 앤 캐슬 뷰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메사와 뷰트이고, 가장 높은 뷰트인 '브리검 톱'도 이 일대에 있다.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셸 뷰트',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산책로인 '와일드캣 트레일' 등도 이 곳에 모여 있다.

▶밸리 드라이브 지역

모뉴먼트 밸리의 진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프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안쪽을 돌아 볼 수 있는 '밸리 드라이브' 코스를 가장 많이 이용된다. 지프를 빌려 직접 운전할 수 있고 나바호 족이 안내하는 지프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도 된다. 총 길이가 17마일에 이르는 이 코스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가이드투어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으니 지프 가이드투어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웨스트 미튼 뷰트, 메릭 뷰트, 이스트 미튼 뷰트'로 이뤄진 3개의 바위산이 대표적인 풍경이며, 코끼리 형상의 '엘리펀트 뷰트', 역마차 등의 촬영지인 '존 포드 포인트', 원주민 유적을 볼 수 있는 '더 허브', 오렌지색 모래 언덕과 시냇물이 있는 '토템폴 앤 샌드스프링', 모뉴먼트 밸리의 광활한 평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티스츠 포인트', 엄지 발가락 모양의 '더 락', 가장 인기있는 뷰포인트인 '노스 윈도우' 등을 만날 수 있다.

▶굴딩 지역

굴딩 지역은 나바호 족의 소규모 정착촌으로 숙박, 식당 등이 위치한다. 행정 구역상으로 유타주에 속하며, 북서쪽으로 오르면 파웰 호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거처하는 지역이다.

굴딩을 지나 북서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도로 남쪽으로 거대한 '올지토 메사', 북쪽으로 드넓게 펼쳐진 사막 평원에 홀로 서있는 '트레인 락'을 볼 수 있고 '파이우트 팜 로드'에 이르면 원주민들의 유적과 주거지를 볼 수 있으며 파웰 호수의 한 부분을 만날 수 있다.

〈자료제공: US이주투어〉

LIFE IS TRAVEL

관광 외길 30년!

- 1984년, 처음 미주에 관광업을 개척한 이래
- 1992년, 엘로우스톤, 캐나다 투어 처음 시작
- 1994년, 알래스카, 칸쿤 투어 처음 시작
- 1997년, 유럽 투어 처음 시작
- 2008년, 의료 투어 처음 시작
- 2010년, 아프리카 투어 처음 시작
- 2011년, 전세계 크루즈 투어 처음 완성
- 2012년, 시실리 투어 처음 시작으로 유럽 투어 완성

아주관광이 30년동안 쉽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은 첫 눈길 가듯 여행업계를 선도한다는 자부심때문입니다. **또다른 30년의 시작**, 여행업계 1등 기업으로서 고객을 위해 변함없이 뚝뚝뚝 걸어가겠습니다.

穿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눈길 뚫고 들길 가도 어지러이 가지 말아라
今朝我行跡 今朝我行跡
오늘 아침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 (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 (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 (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드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 (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 (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 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 마크 획득 (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 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코산 분쇄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디 신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특별 할인) - 양쪽 앞선 모델

출몰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정가)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 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기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제 33대 남가주 호남 향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설날 2013

대잔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에 향우들과 동포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설잔치를 벌입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3년 2월 8일(금요일) 오후 6시

제 1부: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제 32대 이임회장 정 인기
제 33대 신임회장 송 채현
제 2부: 설날 잔치 (사회: 이 창록)

장 소: 용수산 (213) 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연락처: 사무총장 데이빗 리 (213) 215-9523
davidlee315@yahoo.com



남가주 호남 향우회

若無潮南 是無國家 호남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중에서



우리는 호남인임을 자랑한다 .
우리는 호남인의 역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
동학혁명 . 광주학생의개입 5.18광주민주화항쟁의
곧 호남정신임을 다시 확인한다 .
우리는 호남인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도 모함의 피해
호남정신임을 계승 발전하여 민주화인사화 및
모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코자한다 .
우리는 편협한 지방주의를 초월하여 큰 뜻을 피고자
호남인의 순수한 마음들을 여기서 모은다 .



蛇 201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3 EQUUS Signature



\$559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60,150
PH HYUNDAI D/C \$3,58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066542)

2013 SONATA GLS



\$92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22,175
PH HYUNDAI D/C \$684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589865)

2013 ELANTRA GLS



\$55 36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19,015 PH HYUNDAI D/C \$427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248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